

새 전주고속터미널 문화공간으로

2층 복합 문화 마당 · 편의점 · 3층 서점 등 갖춰 시민 · 관광객 편의 제공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문을 연지 36년 만에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터미널시설은 물론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문화마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단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한 고속버스터미널은 금호터미널(주)이 약 150억원 가량을 투자해 기존 고속터미널의 본관동과 주유동 별관동을 완전 철거하고, 가리내로 방향으로 건축면적 3617㎡와 연면적 723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했다.

지상 1층에는 이용객 전용 주차장(47대)과 대합실, 매표실, 일반 음식점 등이 들어섰으며, 지상 2층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마당과 편의점, 소매점 등을 갖췄다. 또 지상 3층에는 1.210㎡ 규모의 서점이 들어서는 등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30년 넘게 외지인들이 전주를 찾는 관문으로 이용됐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고속버스터미널이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종합터미널로 개편하면서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용만족도 향상으로 100만 관광객 유치는 물론 법원·검



전주시는 지난 8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문화마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단,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개관식을 가졌다.

찰 부지 등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터미널(주)은 이번 고속버스터미널 신축으로 연간 220만명에서 300만여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이어 전주의 또 다른 관문이자

전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도 버스회사 등 관련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시민의 첫인상만큼이나 도시의 첫인상도 중요한데 전주시는 물리적 공간의 첫인상을 품격 있고 쾌적하게 바꾸

는 전주 첫인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고속버스터미널과 함께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고속도로 불게이트와 나들목, 전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전주의 관문들을 변화시켜 전주의 첫인상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후아마크 등 3개 제품 바이(BUY)전주 우수상품 인증

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 국내외 판촉 · 판로 개척 등 지원

전주시가 ㈜인텍의 후아마크, ㈜휴테크의 전변개폐식 패들, ㈜다오코리아의 친환경매트 및 안전보호벽 등 3개 제품을 바이(BUY)전주 우수상품으로 인증했다.

전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우수 상품 발굴 및 우수업체 육성을 위한 바이전주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Buy전주 사업은 지역 우수업체 육성 및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해 Buy전주우수상품으로 인증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전국 지

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기업지원시책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 중 ㈜인텍의 후아마크는 세계최초로 개발된 패션 마스크로, 필터 교환 및 끈 조절기능, 안경 김서림 방지 등이 가능해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 등 호흡기 질환 예방 생활필수품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테크의 전변개폐식 패들은 지역 중소기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효율성과 생산성 가능성, 호환성, 디자인의 심미성을 갖춰 광고 및 홍보용으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오코리아의 친환경매트 및 안전보호벽은 친환경 원단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중간 소음 차단과 온도 변화에 강해 신축·팽창 등 변형이 없어 향후 가정용과 체육관, 실내놀이방 등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바이전주우수상품 선정 업체는 우수상품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받고, 시는 우수상품 홍보 지원과 시 소속기관과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조, 마케팅 지원, 수도권 홍보관 홍보 등 국내외 판촉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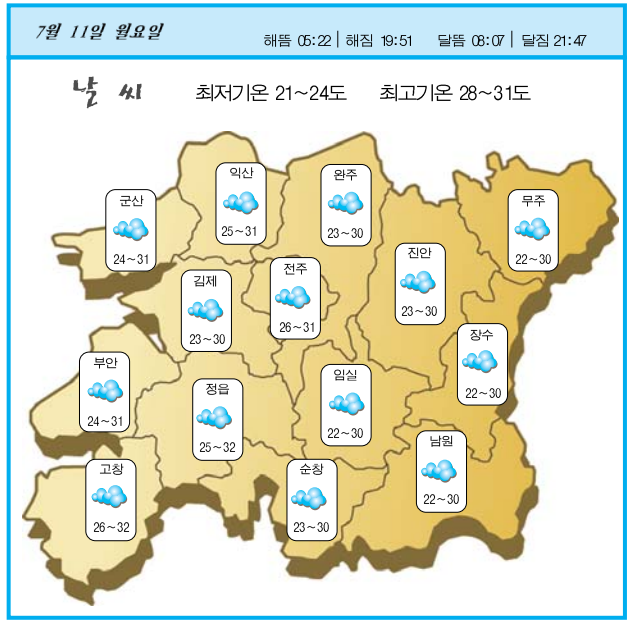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업체는 3억

원 이내의 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시 5%의 이차보전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바이전주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실무위원들의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내용을 토대로 업체의 제안 설명과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선정 심사를 실시했다.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관계자는 "기업현장 방문 시 수시 발굴을 통해 우수업체 수를 확대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바이전주 인증기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세계적인 강소항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영호남 4개 대학교 총장협의회 개최

학생교류 · 공동봉사활동 등 현황 보고 · 발전방향 모색

영·호남을 대표하는 4개 대학교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발전 및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원광대에 따르면 동아대와 영남대·조선대 등이 포함된 '제4회 영호남 4개 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동아대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원광대 김도중 총장을 비롯해 동아대 권오창 총장, 영남대 노석균 총장, 조선대 서재홍 총장과 대외교류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학생교류와 공동봉사활동, 교직원 교류, 학술대회, 스포츠 교류 등 그동안 진행한 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4개 대학 총장들은 "그동안 이룩한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공동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영호남 4개 대학교는 세계화 및 개방화라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동서지역 간 화합과 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1998년 최초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교직원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지고 있는 이들 4개 대학은 2008년부터 영남지역 대학은 호남으로, 호남지역 대학은 영남으로 학생을 파견하는 학생교류 프로그램 시행해 지금까지 총 31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대 14·15일 학과 체험형 입시설명회

전북대가 진로 선택에 고민하는 고교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학과 체험형 입시설명회를 마련한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2016 꿈&기와의 만남 전이라는 주제로 열게 될 전북대 입시설명회에 도내 고교생과 학부모, 교사가 직접 대학을 찾아 학과의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입학본부와 14개 단과대학 100여 개 학과(부)가 학과 체험에 참여한다. 때문에 대학을 찾는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체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시설명회와 캠퍼스 투어, 대학 교직원(교수 및 입시담당관)과 고교 교사 간 정보 교류 및 토론 등 다양한 정보제공의 자리도 마련된다.

최영준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 고교생과 학부모 교사가 우리대학을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행복한 동행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전라북도교육청은 더불어 가는 학부모교육을 꿈꿉니다.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위한 행복한 동행, 전북의 학부모 여러분이 함께 걸어주세요.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